

# 回 想



許仁旭  
〈석유협회 업무과장〉

**동력자원부는** 지난 '73년 제1 차 석유위기 후, 에너지 자원정책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여러해에 걸친 신중한 검토 끝에 종합적인 에너지 자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 아래 1978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설립된 동자부가 다시 15년만에 상공부에 흡수된 것이 나로써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바탕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동력자원부 출범후 15년 동안의 정책 수행과정에 큰 과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안정수급」과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렴한 가격유지」(본인은 석유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석유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것임)를 정책목표로 삼아 각고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데, 갑자기 한달여만에 서둘러 동자부를 폐지한 것은, -물론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의 보도방향이나 그 분위기가 동자부 폐지를 포함한 신정부의 「작은 정부」지향에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였다 하더라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쉬운 것은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동자부 폐지에 따른 국가적 영향이나 리플을 좀 더 따져 보고 나서 판단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으니 무어라 토를 달 수도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동자부는 폐지되었지만, 정책이나 행정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다만 기구가 축소되었다는 점과, 어찌보면 비슷한 것도 같지만, 정책방향과 기업의 발전전략이 상치될 수도 있

는 에너지부문과 일반산업 부문의 정책과 행정 이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기시 정책결정의 순발력에 대한 걱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유산업의 특성이 배려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큰 변화로서 피부에 와 닿는다.

동자부는 출범후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돈이 있어도 原油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석유사업 기금을 재원으로 전국 여러 곳에 비축기지를 건설하여 약 4천만배럴에 상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비축해 놓고 있다. 4천만 배럴이라는 물량은 '8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수요가 백만배럴을 밀돌았으니 40일분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약 25일분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래서 동자부는 90년부터 제2차 비축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96년까지 5,300만배럴을 추가로 비축하기로 했다.

또 출범초 100%이던 原油의 中東 의존도를 낮춰 導入先을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政情이 불안한 中東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유에 대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융비, 운송비의 보상과 장려금 지급등이 그것이었으며 현재는 모두 폐지되고 추가 운송비에 대한 보상 규정만이 잔존하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재('91-'92 평균)의 中東 의존도는 약 74%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이와같은 안정공급정책과 병행하여 석유제품 가격의 저가안정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방침으로 나프타와 B-C유 등에 대해서 그러했고 민생안정

차원에서 등·경유에 대해서도 그러했으며, 이같은 정책은 15년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석유제품의 저가유지정책은 아주 단호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비 율	
81.	4. 19	15.0 %	인상
	11. 29	6.0 %	인상
82.	3. 1	2.82%	인하(국내 최초의 유가인하)
83.	2. 6	1.68%	"
	4. 19	4.76%	"
86.	2. 20	12.93%	"
	3. 30	10.70%	"
87.	10. 16	11.01%	"
88.	3. 11	11.74%	"
	6. 8	6.39%	"
	11. 2	5.33%	"
90.	11. 25	5.5 %	인상
91.	5. 1	0.2 %	인하
	7. 1	4.1 %	인하
92.	6. 25	13.9 %	인상(현재)

第2차 석유위기당시인 '79년 겨울철에 유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있기는 했으나, '82년 3월 1일부터 인하되기 시작한 油價는 현재의 수준이 80년말에 비해 31.65%나 인하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는 동자부의 가격에 대한 보수적인 관리와 정유산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유산업으로서는 「좋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도 항상 미흡한 수준으로 되었다. 동자부로서는 저가 안정유지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두가지 목표(그밖에도 중요한 많은 정책이 있지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동자부의 초기정책이었다면, 경제발전에 의한 경제규모의 팽창과 소득증가에 따른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와 고급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동자부의 초기정책은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상암시설능력을 890천B/D에서 1,675천

B/D로 증강시켰고 목전의 과제로 다가선 대기환경보전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의 경질화에 대처하기 위한 탈황 및 분해시설의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저가유지 정책이 석유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유발시켰다는 内外의 지적에 따라 「수요관리」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변화는 분명해 보인다.

이같은 여건변화에 대처해야 할 동자부의 과제는 산적되어 있다. 이제는 석유가격의 저가유지가 아니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고시가격체제로부터의 변화, 석유수출입의 자율화, 유통질서 개선등의 부문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정책변화를 예고했고, 이미 진행중인 사안들은 신 정부의 개혁정책과 어우러져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동자부 폐지, 기구축소라는 개혁의 파도에 휩쓸려버린 것이다.

동자부가 독립부처로서 그같은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나 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상공자원부내에서도 에너지 자원정책이 일관되고 훌륭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한다.

12년전 어느 날, 동자부의 L모씨가, 석유가격을 59%나 인상했던 날 숙적이었다면서 그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노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유가를 몇번씩 인하 했어도 그같은 조치에 대한 격려의 전화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어려웠던 때 부처가 발족되어 기틀을 마련하느라고 생이 많았다는 얘기가.

사람이 들어온 자리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도, 나간 자리는 표시가 드러나고 허전한 법이다. 과천청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분이 민원실에서 청사 출입증을 교부해 주는 분이다. 동자부폐지발표가 있고 나서 근심어린 표정이 역력하더니 어느 날인가 부터는 그 자리도 없어지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기구가 축소되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모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15년간 종합적인 에너지 자원 행정의 근간을 마련하고 밤을 밝혀 일 해온 동력자원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 ■ 근간 ■

# 석유의 이해

대한석유협회 홍보실